익산시, 통합돌봄 민관 협력기구 출범

지역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착수… 시민 체감형 돌봄 서비스 실현 '기대'

익산시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지난 30일 '익산형 통합돌봄 민·관 추진단(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통합 돌봄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부서별 역할·실행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무 중심의 민·관 공조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익산 부시장이 단장을, 복지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으며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주택과 등 시 관계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익산 라이즈(RISE)사업 추진단 등 총 7개 부서·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고령자, 돌봄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제정,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단위 돌봄 통합 정책의 근거법이다. 의료·요양·복지 등 분절된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이 핵심이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전담조직(계 단위)'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의 통합 돌봄 정책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젝트 가동

군산시-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 '군산시와 함께돌봄' 협약 맺어

군산시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젝트 '군산시와 함께돌봄' 업무협약을 지난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과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경제적 지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학업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조기에 발굴, 세심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군산시 역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2023년 제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 정책 집행에 돌입하게 됐다.

협약을 마친 양 기관은 앞으로 △군산시 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발굴 및 상호 의뢰 △경제적·프로그램 지원 협력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프로젝트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며, 군산시 내 저소득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억 원 규모의 복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재원은 초록우산 재단기금과 지역 사회 모금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은 "군산시와의 협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내 선순환 복지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이번 협약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입의 의미"라며,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 2호점 'BBQ 익산문화점' 문 활짝

다이로움 카드 10% 혜택 등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에 2호점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다.

익산시는 중앙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략 사업 '치킨로드'에 두 번째 매장인 'BBQ 익산문화점'이 개점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2호점 개점으로 치킨로드는 브랜드 유치·창업 생태계·도시재생이 결합된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외식브랜드의 참여로 도심 상권 다변화와 청년 창업 유도에 긍정적인 연계 상승 효과를 내고, 특히 청년 창업자의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문화예술의 거리 핵심 입지에 위치한 '치킨로드 2호점'이 조용하던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치킨로드 이용자에게 매월 다이로움 카드 10%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점에 맞춰 한 달 동안 치즈볼 무료 증정, 생맥주 할인 등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6월에는 치킨로드 3호점과 4호점도 각각 개점을 앞두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우수 지자체로 '주목'

2년째 슈퍼비전 기관으로 전국 확산 거점 역할 수행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을 비롯한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들이 익산을 찾아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성과를 살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익산시의 사업 추진 사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수혜 대상자 가정을 찾아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재가 의료급여가 미친 영향을 직접 살폈다.

익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52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한 가사·간병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밑반찬 제공 △재래시장과 사회적기업을 통한 물품 지원 등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의료비 절감률 72%, 재가 생활 유지율 87%, 대상자 만족도 95%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슈퍼비전 기관'으로 지정돼, 다른 지자체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을 비롯한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들이 익산을 찾아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성과를 살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익산시는 재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전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익산시의 사례는 제도 개선과 다른 지자체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쌓아온 현장 경험과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촘촘한 사례관리를 이어가겠다"며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중앙동 구도심에 안전 인프라 확충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 선정… 3억4000만원 투입

익산시가 쇠퇴한 구도심의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충에 나선다.

익산시는 중앙동 구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형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첫발을 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인 중앙동은 한때 익산의 상업·행정 중심지였으나, 상권 이동과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범죄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생활 안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익산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통계와 현장 치안 정보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지역을 우선 정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쇠퇴 지역의 범죄 예방력 회복과 생활환경 재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선제적 행정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 △고화질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설치 △로고 프로젝터 설치 △노후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골목길 환경 개선 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조성되는 유휴공간은 주차장 또는 주민 소통 공간 등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도심 내 공공성 회복과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통합형 사업 모델로서 주목된다.

빈집 철거 후 조성되는 주차장은 최근 구도심 관광 명소 조성 사업 일환으로 문을 연 베이커리형 카페 '금종제과'와 '청년몰' 방문객은 물론, 인근 중앙·매일·서동시장 이용객들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7개 시군이 응모한 가운데 군산시는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 內 방범 시설 확충을 통한 범죄 발생 심리 억제 및 안전한 생활환경 거주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단 외국인 원룸촌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공모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시는 '지능형 AI 융복합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얼굴인식과 이상 음원 탐지가 가능한 스마트폴 4대, 생활방범용 CCTV 5대를 설치 계획이다.

특히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업하여 외국인 주 거주(운집) 지역인 오식도동 원룸촌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범죄분석을 통해 9개소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총사업비는 4억원(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청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 주의 당부

최근 군산시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가구업체에 접근,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대면 만남을 시도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해 관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0일 시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군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전화로 "시청에서 사용할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 한다."라고 접근한 후 신뢰를 얻기 위해 대면 접촉을 요구하며 사기를 시도했고,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명함을 위조한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유사 사기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안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